

<2015.11.18.>



2015.11.17

고창군, 21일 '주민과 함께' 생태환경 페스티벌 개최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전북 고창군에서 '생태환경 페스티벌'이 열린다.

사단법인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회장 이상복)는 이달 21일 고창군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들의생태환경이야기'라는 주제로 제2회 고창군생태환경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생태환경 페스티벌에서는 환경&생태 노래자랑, 생태환경 체험, 생태환경 보전 주민실천활동 전시회 등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별공연으로 문화원 나눔예술단, 실용음악연구소 등이 참여해 생태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번 축제는 고창군 전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이후 지역주민들의 자연생태자원 보전과 생물의 다양성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열매 맺는 뜻 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장 주변에는 생물권보전 핵심지역 5곳의 아름다운 생태사진 전시회가 열리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활속에서 경험하는 먹거리, 생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등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생물권보전 핵심지역의 하나인 고창갯벌 요충지인 삼양사 휴 염전에 들어서려는 태양광발전소 반대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돼 생태보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킨다는 계획이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실천활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jcpark@

[© 뉴스1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